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6;55(4):458-466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¹ 스트렝스가든,² 계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³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⁴

정영은¹ · 이지은² · 박주언³ · 채정호⁴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Young-Eun Jung, MD, PhD¹, Ji-Eun Lee, MA²,
Joo Eon Park, MD, PhD³, and Jeong-Ho Chae, MD, PhD⁴

¹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²Strength Garden, Seoul,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Keyo Hospital, Uiwang,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Received September 2, 2016
Revised September 8, 2016
Accepted October 5, 2016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ong-Ho Chae,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06591, Korea
Tel +82-2-2258-6083
Fax +82-2-594-3870
E-mail alberto@catholic.ac.k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and to examin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Methods The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is based on a self-reporting, 100 item questionnaire that measures 25 strengths. Each scale item was given a 0–5 rating on a 6-point scale. In order to test the scale's validity and reli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422 youths (aged 12–18 years). The strength measures included in our analyses were those contained within the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the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Korean Well-Being Scale for Adolescents, and the Short Five Factor Personality Scale for Children.

Results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scale-measures indicated the importance of four factors. The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was shown to have acceptable psychometric properties, including good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and high convergent correlations.

Conclusion The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that can be used to assess strengths in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6;55(4):458-466**

KEY WORDS Strength · Scale development · Validity · Korean · Youth.

서 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좋은 성격과 성품, 그에 따른 행동 양식, 탁월한 재능 등을 의미하는 긍정적 특질(positive traits)은 긍정심리학에서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주제이다.^{1,2)} 특히 인간의 좋은 성격과 성품을 뜻하는 ‘강점(strength)’은 개개인의 자기 실현과 충만한 삶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도덕적 가치인 덕목(virtue)과 연결되어 긍정적 제도와 조직(positive institutions)의 기본을 이룬다. 강점은 인간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의 반영이며, 저마다의 다양한 강점들을 찾아내어 개발하고 삶에 활용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³⁻⁷⁾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성장의 과업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발달 과업의 부담으로 자칫 심리적 부적응,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할 혼동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⁸⁾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잠재력을 추구하는 것은 청소년기 정신건강과 긍정적 발달을 도울 수 있다. 강점의 활용은 활기와 열정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 향상과 주관적 안녕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⁹⁾

현재 강점에 대한 합의된 분류 체계로는 Peterson과 Seligman⁴⁾에 의한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과 덕목(virtues)에 관한 Values-in-Action(이하 VIA) 분류 체계’가 대표적이다. VIA 분류 체계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6개의 핵심 덕

목 아래 그것을 구현하는 24가지 성격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VIA 분류 체계에 따른 성격강점 측정을 위해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개발된 척도가 총 240문항의 성인용 성격강점 척도(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이하 VIA-IS)이다.⁴⁾ 이어 10~17세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용 성격강점 척도(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이하 VIA-Youth)도 추가적으로 개발되었다.⁸⁾ VIA-Youth는 성인용과 동일하게 6개의 핵심 덕목 아래 24가지 성격강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8문항으로 연령에 적합한 이해가 쉬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학교, 친구 등 청소년에게 익숙한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¹⁰⁾

국내에는 VIA-IS를 기초하여 Kwon 등¹¹⁾이 개발한 성격강점검사(Character Strengths Test, 이하 CST)가 있다. 그러나, CST는 많은 문항 수로 인한 실제 적용의 어려움과 한국인 고유의 성격강점과 긍정심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적합할지에 대한 검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진다. 아직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국내 검사 도구는 부재하여 국내 강점 관련 연구의 경우 외국의 VIA-Youth를 번안하여 적용하거나, Kwon 등¹¹⁾의 CST를 수정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다.¹²⁻¹⁴⁾

본 저자들은 앞서 한국인 혹은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강점 분류 체계를 제안,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한국인 강점 척도(Korean Strength Scale)를 개발한 바 있다.¹⁵⁾ 새로운 강점 분류 체계는 강점이란 개인의 자기 실현과 동시에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하에,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국내외 관련 문헌과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VIA 분류 체계에 포함된 시민의식(citizenship), 리더십(leadership)과 같이 개인과 조직 안에서의 역할을 구분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회적 강점들 대신 집단주의 문화권의 공동체적 협동 의식과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정서적 강점들(축진, 신념, 책임, 진솔 등)이 추가되었다. 또, 인간애(humanity)라는 대인간 강점이 친교, 포용, 친절, 공감 등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되었다. 그 결과, 최종 25개 강점요인 분류 체계를 제안하고, 대상자가 보다 쉽게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강점의 측정과 개입에 용이도록 12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인 강점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인 강점 척도는 요인 분석 결과, 25개의 하위 영역은 4개의 상위 요인 구조를 보였으며,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측정 도구로 평가된 바 있다.¹⁵⁾ 또한 개인의 강점의 발견과 강점에 기반한 긍정심리개입에 관한 임상적 실제, 연구 및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6,17)}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강점 분류 체계와 한국인 강점 척도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과 비교, 청소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점 기반 긍정적 개입을 위한 도구로 실제 적용하고자 한다.

방 법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22명(중학생 217명, 고등학생 20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204명(48.3%), 여학생은 218명(51.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5.2±1.0세였다. 참가자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스트렝스가든(<http://www.strengthgarden.co.kr>)이 주최한 학교 기반 긍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중·고등학생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양한 도시지역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설문 실시 시간은 약 30~40분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설문 실시 이전에 연구 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설문 실시 요령 및 주의사항 등 연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가에 동의하였다. 최소 위험에 해당하는 연구이며, 서명한 동의서 등에 의한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 등으로 동의서 취득을 하지 않았다.

1차 설문이 이루어진 3개월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의 선정된 100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94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89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 도구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

본 연구는 청소년에서 Jung 등¹⁵⁾이 개발한 한국인 강점 척도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한국인 강점 척도는 총 12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각각의 강점에 해당하는 2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적 일치 신뢰도를 보인 타당한 측정 도구로 평가되었다. 기존 문항에 대해 사전의 예비 검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이해가 쉬운 어휘로 수정하였으며,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육심리전문가, 긍정심리상담전공자, 정신간호학 전공 교수 등 6명의 전문가에게 척도의 구성 개념 및 하위 영역의 조작적 정의와 예비 문항을 제시하여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문항 구성과 수정을 반복하고 내용상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항들의 제거가 이루어졌으며, 문항의 중요도 및 하위 영역의 수와 검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0개 문항(25개의 하위 영역 별 4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척도의 반응 양식(response scale)은 응답의 중앙 집중 현상을 피하고 좀 더 정확한 자기 생각이 반영되도록 6점 형식(0='전혀 그렇지 않다', 1='별로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꽤 그렇다', 5='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고, 채점 방식은 하위 영역별 소척도에 포함된 모든 항목 점수의 총합으로 결정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문항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 중학교의 한 학급(남학생 18명, 여학생 15명, 전체 3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예비 문항을 배부하고 각 문항의 뜻과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 이해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이해도를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였을 때 평균 4.47 ± 4.90 점으로 그 의미가 명료하게 이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청소년 안녕감 척도(Korean Well-Being Scale for Adolescent, K-WBSA)

Keyes¹⁸⁾가 개발한 안녕감 척도는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의 3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평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Lee 등¹⁹⁾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변안,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척도 타당화 검증을 통해 개발한 한국청소년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지난 한 달 동안 해당 사항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해 6점 방식(0='전혀 없다', 1='한두 번', 2='일주일에 한 번', 3='일주일에 두세 번', 4='거의 매일', 5='매일')이며, 3개의 하위 요인(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의 지각을 의미하며 '행복한 삶' 즉, 높은 삶의 만족도와 낮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정의되며,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성숙되고 개체로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로 정의된다. 심리적 안녕감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 및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반해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구조와 공동체적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웃으로서, 동료로서, 시민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며, 사회적 기여, 사회적 응집성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긍정적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은 Watson 등²⁰⁾이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20문항의 자가 보고형 기분 척도이다.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된 하위 척도(정적 정동 및 부정적 정동)로 구성된 5점 평정 척도로서, 점수범위는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각각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격특성 척도(Short Five Factor Personality Scale for Children)

청소년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요인 성격 모델(Big Five model)에 기초하여 John과 Srivastava²¹⁾가 개발한 아동용 5요인 성격 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아동용 5요인 성격 검사가 개발되어 있으며,²²⁾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18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평정 척도이며,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정서적 안정성(neuroticism)'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정도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두 번째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대인 행동 스타일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나타낸다. 세 번째,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지적 호기심, 자연과 예술에 대한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즐기는 정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네 번째, '우호성(agreeableness)'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잘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충동을 자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 강점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혹은 동질성의 정도를 신뢰도로 추정하기 위해, 전체 문항 및 25개의 하위 요인에 대해 문항 공변량에 기초한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해 본 조사와 재검사(3개월 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25개 하위 요인 척도 값을 사용하여 상위 요인 구조를 확인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 기존의 다른 척도와의 상관 관계(Pearson correlation)를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 강점 척도의 25개 하위 요인 척도 값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형성 적절성을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 지수가 0.951로 표본의 크기가 모형에 적합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치는 7454.88

($df=300$)로 이 값의 유의 수준이 0.00이므로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은 4개로 나타났고,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6.1%를 설명하였다. 강점 척도의 4개의 상위 요인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합리성/정의로움과 관련된 강점(신중, 겸손, 통찰, 판단, 책임, 포용, 조절, 공정, 진솔), 2) 사회성/대인관계와 관련된 강점(친교, 유머, 공감, 친절, 축진, 감탄), 3) 미래지향성/개방성과 관련된 강점(끈기, 신념, 용기, 창의, 열정, 탐구, 호기심, 희망), 4) 초월과 관련된 강점(초월, 감사). 모든 하위 요인들은 그들이 속한 지정된 상위 요인과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었고, 해당 상위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의 크기는 0.457(희망)에서 0.825(친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표 1).

문항 간 점수 비교 및 신뢰도 검증

25개의 강점 중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Reasonableness/ righteousness	Extraversion/ social relatedness	Future-oriented/ openness	Transcendence
Prudence	0.765*	0.029	0.346	0.034
Modesty	0.715*	-0.002	-0.040	0.395
Perspective	0.715*	0.221	0.336	0.038
Judgment	0.694*	0.331	0.225	0.029
Responsibility	0.674*	0.117	0.435	0.126
Magnanimity	0.630*	0.484	0.037	0.282
Self-regulation	0.622*	0.083	0.203	0.097
Fairness	0.532*	0.492	0.351	0.245
Sincerity	0.464*	0.399	0.435	-0.025
Sociability	0.130	0.825*	0.234	0.018
Humor	0.002	0.767*	0.301	0.067
Empathy	0.549	0.609*	0.015	0.218
Kindness	0.463	0.553*	0.190	0.321
Facilitation	0.424	0.539*	0.317	0.281
Appreciation	0.375	0.465*	0.170	0.382
Persistence	0.420	0.092	0.710*	0.132
Faith	0.428	0.258	0.681*	0.180
Courage	0.319	0.382	0.642*	0.180
Creativity	0.102	0.399	0.627*	0.309
Zest	0.154	0.523	0.616*	0.274
Love of learning	0.297	0.157	0.594*	0.385
Curiosity	0.053	0.576	0.579*	0.275
Hope	0.301	0.269	0.457*	0.445
Transcendence	-0.017	0.077	0.332	0.746*
Gratitude	0.323	0.241	0.196	0.616*
Eigen-value	12.6	2.02	1.34	1.02
% variance	48.6	8.1	5.4	4.1

* : Highest factor loading for each item

Table 2.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Mean (SD)	Cronbach's α	Test-retest reliability
Reasonableness/righteousness			
Prudence	12.9 (3.4)	0.752	0.695*
Modesty	11.9 (3.3)	0.710	0.724*
Perspective	13.0 (3.2)	0.751	0.723*
Judgment	13.7 (3.2)	0.777	0.607*
Responsibility	12.7 (3.3)	0.760	0.682*
Magnanimity	12.3 (3.4)	0.796	0.603*
Self-regulation	11.6 (3.6)	0.760	0.655*
Fairness	11.5 (3.4)	0.723	0.684*
Sincerity	13.0 (3.4)	0.752	0.706*
Extraversion/social relatedness			
Sociability	12.9 (4.2)	0.845	0.836*
Humor	12.0 (4.3)	0.891	0.821*
Empathy	13.0 (3.5)	0.848	0.708*
Kindness	12.5 (3.2)	0.808	0.678*
Facilitation	12.5 (3.7)	0.796	0.593*
Appreciation	12.2 (3.8)	0.728	0.657*
Future-oriented/openness			
Persistence	11.6 (3.6)	0.799	0.653*
Faith	12.3 (3.5)	0.814	0.637*
Courage	12.1 (3.7)	0.826	0.586*
Creativity	11.2 (4.2)	0.883	0.745*
Zest	11.8 (3.9)	0.804	0.724*
Love of learning	11.2 (3.8)	0.765	0.626*
Curiosity	12.5 (3.5)	0.739	0.700*
Hope	13.6 (3.6)	0.738	0.744*
Transcendence			
Transcendence	9.6 (5.2)	0.758	0.707*
Gratitude	12.5 (4.1)	0.859	0.688*

* : $p < 0.001$

은 판단, 희망, 진솔, 공감, 통찰이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은 초월, 인내, 학구열이었다. 강점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0.97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5개 강점 하위 요인 척도의 신뢰도는 0.710(겸손)에서 0.891(유머)까지의 범위에 있다. 각 하위 요인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의 문항-하위 척도 총점 간 상관도 모든 문항이 0.30 이상을 보였으며,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내적 일치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이며, 각 하위 척도를 측정하기에 양호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2).

전체 문항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10($p < 0.001$)이며, 25개의 하위 척도의 경우에도 0.586~0.83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표 2).

안녕감과 긍정/부정 정서와의 상관

타 척도와 강점 척도 요인들 간의 상관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안녕감은 강점 척도의 모든 하위 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열정($r=0.556, p < 0.001$), 희망($r=0.527, p < 0.001$), 감사($r=0.500, p < 0.001$)와 안녕감의 상관성이 높았다. 요인별로는 '정서적 안녕감'이 희망, 열정, 감사($r's \geq 0.40, p < 0.001$)와, '심리적 안녕감'이 열정, 신념, 끈기, 촉진, 용기, 희망 등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r's \geq 0.50, p < 0.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녕감'은 공정, 신념, 열정, 희망, 감사, 촉진 등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r's \geq 0.40, p < 0.001$)(표 3).

긍정적 정서와의 상관 관계는 모든 강점 하위 요인들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p < 0.001$), 부정적 정서와는 각 하위 요인이 상관이 없거나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표 3).

Table 3. Correlation among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PANAS, and K-WBSA

	PANAS		K-WBSA			Total
	Positive	Negative	Emotional	Psychological	Social	
Reasonableness/righteousness						
Prudence	0.376†	-0.061	0.185†	0.373†	0.271†	0.315†
Modesty	0.214†	-0.048	0.176†	0.296†	0.245†	0.272†
Perspective	0.390†	-0.025	0.221†	0.429†	0.299†	0.359†
Judgment	0.409†	-0.058	0.204†	0.383†	0.205†	0.294†
Responsibility	0.454†	-0.162*	0.300†	0.441†	0.298†	0.385†
Magnanimity	0.437†	-0.157*	0.265†	0.399†	0.322†	0.371†
Self-regulation	0.309†	-0.144*	0.197†	0.251†	0.220†	0.250†
Fairness	0.512†	-0.132*	0.306†	0.492†	0.408†	0.457†
Sincerity	0.483†	-0.126*	0.285†	0.379†	0.291†	0.355†
Social relatedness/interpersonal						
Sociability	0.504†	-0.135*	0.302†	0.437†	0.310†	0.390†
Humor	0.402†	-0.057	0.241†	0.385†	0.298†	0.348†
Empathy	0.432†	-0.049	0.240†	0.413†	0.293†	0.355†
Kindness	0.474†	-0.113*	0.352†	0.484†	0.392†	0.460†
Facilitation	0.503†	-0.159*	0.370†	0.513†	0.397†	0.477†
Appreciation	0.395†	0.010	0.210†	0.388†	0.330†	0.355†
Future-oriented/openness						
Persistence	0.539†	-0.098*	0.287†	0.503†	0.373†	0.439†
Faith	0.607†	-0.073	0.344†	0.548†	0.411†	0.489†
Courage	0.620†	-0.084	0.344†	0.535†	0.371†	0.466†
Creativity	0.493†	0.028	0.286†	0.491†	0.381†	0.438†
Zest	0.661†	-0.120*	0.426†	0.588†	0.471†	0.556†
Love of learning	0.493†	0.051	0.279†	0.499†	0.394†	0.445†
Curiosity	0.541†	0.006	0.334†	0.480†	0.389†	0.452†
Hope	0.596†	-0.092	0.454*	0.520†	0.446†	0.527†
Transcendence						
Transcendence	0.278†	0.095	0.256†	0.359†	0.382†	0.382†
Gratitude	0.401†	-0.134*	0.449†	0.475†	0.427†	0.500†

* : p<0.05, † : p<0.001. K-WBSA : Korean Well-Being Scale for Adolescent, PANAS :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성격특성 척도와의 상관

성격 검사의 5개의 요인과 강점척도의 25개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25개의 하위 요인 중에서,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된 항목은 공감, 감탄 등이었으며($r's \cong 0.20, p < 0.001$), '외향성'은 창의, 호기심, 탐구 등과 상관성을 보였다($r's \cong 0.30, p < 0.001$). '개방성'은 창의, 호기심과 ($r's \cong 0.60, p < 0.001$), '우호성'은 친절, 겸손과 상관성을 보였다($r's \cong 0.60, p < 0.001$).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책임, 끈기, 신념, 열정, 탐구, 용기 등과 상관성을 보였다($r's \cong 0.60, p < 0.001$)(표 4).

고 찰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점 기반 긍정적 개입

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성인용 한국인 강점 척도의 요인 구성을 유지하면서 청소년에게 익숙한 맥락과 이해가 쉬운 언어 표현으로 문항을 수정, 개발하였고, 그 결과 25개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100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요인 분석을 통해 4개의 상위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척도 및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내적 일관성 및 시간적 안정성 면에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 청소년용 척도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상위 요인, 즉 1) 합리성/정의로움과 관련된 강점(신중, 겸손, 통찰, 판단, 책임, 포용, 조절, 공정, 진솔), 2) 사회성/대인관계와 관련된 강점(친교, 유머, 공감, 친절, 축진, 감탄), 3) 미래지향성/개방성과 관련된 강점(끈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orean Strength Scale for Youth and Big-Five Personality Test

	Big-Five Personality Test				
	Neuroticism	Extra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Reasonableness/righteousness					
Prudence	0.122*	0.247†	0.256†	0.388†	0.407†
Modesty	0.058	0.110*	0.289†	0.640†	0.436†
Perspective	0.119*	0.256†	0.394†	0.498†	0.477†
Judgment	0.084	0.265†	0.333†	0.511†	0.433†
Responsibility	0.047	0.231†	0.253†	0.529†	0.543†
Magnanimity	0.108*	0.156*	0.174†	0.405†	0.263†
Self-regulation	-0.069	0.141*	0.264†	0.358†	0.305†
Fairness	0.085	0.291†	0.396†	0.552†	0.495†
Sincerity	0.050	0.292†	0.290†	0.459†	0.453†
Extraversion/social relatedness					
Sociability	0.051	0.177†	0.298†	0.443†	0.388†
Humor	0.043	0.220†	0.433†	0.382†	0.393†
Empathy	0.192†	0.155*	0.256†	0.580†	0.443†
Kindness	0.057	0.206†	0.331†	0.650†	0.465†
Facilitation	0.075	0.248†	0.327†	0.518†	0.485†
Appreciation	0.197†	0.254†	0.380†	0.488†	0.383†
Future-oriented/openness					
Persistence	0.011	0.225†	0.326†	0.328†	0.613†
Faith	0.071	0.295†	0.409†	0.465†	0.642†
Courage	0.003	0.239†	0.418†	0.412†	0.592†
Creativity	0.065	0.358†	0.724†	0.337†	0.537†
Zest	0.007	0.265†	0.413†	0.432†	0.579†
Love of learning	0.065	0.322†	0.439†	0.348†	0.532†
Curiosity	0.079	0.346†	0.578†	0.405†	0.511†
Hope	0.001	0.241†	0.362†	0.443†	0.514†
Transcendence					
Transcendence	0.105*	0.223†	0.316†	0.152*	0.264†
Gratitude	-0.011	0.181†	0.298†	0.386†	0.387†

* : p<0.05, † : p<0.001

기, 신념, 용기, 창의, 열정, 탐구, 호기심, 희망), 4) 초월과 관련된 강점(초월, 감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4개의 상위 요인으로 분류된 성인용 척도¹⁵⁾와 요인 수가 일치하며, 하위 요인의 분류 또한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성인용 척도의 경우 초월 관련 강점(초월, 감사)이 인간애/진실성과 관련된 강점들(겸손, 포용, 진술, 친절)과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된 반면, 청소년용 척도의 경우에는 초월, 감사가 고유치가 가장 낮은 마지막 요인으로 독립적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에서 초월은 평균 점수 또한 가장 낮은 강점에 속했다. 아마도 일상생활을 넘어서 세상의 원리와 삶의 목적에 대해 성찰하는 강점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차원적이거나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청소년의 경우 그에 대해 정확히 측정해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와 관련된 측정치들과의 상관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수렴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격 검사의 5개의 요인과 25개 강점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창의, 호기심이 '개방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친절, 겸손이 '우호성'과 관련이 깊었으며, 책임, 끈기, 신념 등이 '성실성'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VIA-Youth를 이용한 5개의 성격 요인과 강점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¹⁰⁾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는 안녕감, 긍정적 정서와 같은 긍정적 측면의 척도와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열정, 희망, 감사 순으로 주관적인 안녕감과 상관성이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삶의 만족과 의미를 표현하는 정서적/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희망, 열정, 감사와 같은 정서적 강점과 상관성이 높았고, 사회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안녕감의 경우에는 공정, 신념, 추진과

같은 인지적 강점이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희망, 감사와 높은 상관을 보였던 성인에서의 결과와 유사하였고,¹⁵⁾ 청소년을 대상으로 VIA-Youth를 이용한 국내외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다.^{10,14)} 그러나, 청소년에서 특정 강점이 삶의 만족도 및 행복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보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용 척도와 동일하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된 본 척도는 응답자의 주관적 편향 문제를 가지고, 보다 객관적인 준거를 타당화하는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스트렝스가든이 주최한 학교 기반 긍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가 무선 표집을 통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향후 전국에서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여 전국적 규준을 만들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관련 변인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인 강점 척도가 비록 한국 사회 고유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론적 개념화 및 구성 요소에 따른 영역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용의 경우 성인과 다른 청소년의 성장 발달 수준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에 있어 강점에 대한 연구와 강점 기반 개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용 강점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인용, 청소년용 척도를 활용한다면 한국인 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강점 분포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거나 강점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강점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 연구가 보다 활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척도는 학교 및 청소년 정신건강을 목적으로 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평가, 개입 및 개입 효과의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인 강점 척도의 확대 적용을 위하여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 422명이었으며, 측정 도구는 한국청소년 안녕감 척도, 긍정적 부정적 정서 척도, 성격특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25개의 하위 영역은 4개의 상위 요인 구조를 보였다.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는 높은 내적 일치 신뢰도를

보였고, 각각의 하위 영역과 개념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높은 상관을 나타내리라고 기대하였던 관련 측정치들과 예상대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용 한국인 강점 척도는 타당한 측정 도구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청소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한 연구 및 긍정적 개입을 위한 도구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 : 강점 · 척도 개발 · 타당화 · 한국인 · 청소년.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 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 HM15C1054).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Seligman ME, Rashid T, Parks AC. Positive psychotherapy. *Am Psychol* 2006;61:774-788.
- 2) Keyes CLM, Lopez SJ. Toward a science of mental health: positive directions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s. In: Snyder CR, Lopez SJ, editor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2. p.45-62.
- 3) Seligman MEP.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2002.
- 4) Peterson C, Seligman MEP.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4.
- 5) Peterson C.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6.
- 6) Seligman ME, Steen TA, Park N, Peterson C.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 Psychol* 2005;60:410-421.
- 7) Lim YJ. Character strengths and mental well-being. *Korean J Clin Psychol* 2012;3:713-730.
- 8) Lee H, Shin H, Lee K.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 Youth Couns* 2006;14:49-62.
- 9) Rashid T, Anjum A. Positive psychotherapy for young adults and children. In: Abela JRZ, Hankin BL, editor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uilford Press;2008. p.250-287.
- 10) Park N, Peterson C.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 Adolesc* 2006;29:891-909.
- 11) Kwon SM, Yoo SJ, Lim YJ, Kim JY. *Character Strength Test*. Seoul: Hakjisa Press;2010.
- 12) Kim MS, Park SH, Kim JY.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orientations to happiness in adolescents. *J Korean Assoc Psychol* 2013;5:53-71.
- 13) Ha S. The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 character strength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maladjustment. *Korean J Youth Stud* 2015;22:1-32.
- 14) Won DR. The effects of character strengths on well-being and adaptive coping style of adolescents. *Korean J Health Psychol* 2011;16:151-167.
- 15) Jung YE, Lee JE, Han Y, Choi JW, Baek KH, Park JE, et al.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Strength Scale. *Anxiety Mood* 2013;9:45-53.
- 16) Kim SY, Lee JE, Choi JW, Han Y, Baek KH, Huh HJ, et al. Effects of

- brief character strength workshop for enhancement of positivity. *Anxiety Mood* 2014;10:52-58.
- 17) Kwon YJ, Lee JE, Baek KH, Nho JH, Chae JH. Effects of brief character strength workshop for enhancement of positivity for psychiatrist. *Anxiety Mood* 2015;11:155-161.
 - 18) Keyes CIM.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 Family Health* 2005;4:1-32.
 - 19) Lee HJ, Lee MN, Choe IS. Validation of a Well-Being Scale of Adolescent in Korea. *Korean J Educ Psychol* 2008;22:301-315.
 - 20) Watson D, Clark LA, Tellegen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 Pers Soc Psychol* 1988;54:1063-1070.
 - 21) John OP, Srivastava S.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Pervin LA, John OP, editor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1999. p.102-138.
 - 22) Lee SH, Choi YI. Validation study of a Short Five Factor Personality Scale for children. *Korean J Psychol* 2011;30:543-569.